

The FOUR SEASONS

한라인에게 영감을 주는 매거진 사계

2019 MAY — Vol. 320



엄마가 변했다.
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주고,
남는 시간은
자기계발에 투자한다.
단지 엄마만의 변화가 아니다.
기성세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밀레니얼 가족은
집안일은 가성비 있게 처리하고,
가족 간은 동등하며,
개인의 시간과 공간은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향후 한국 소비시장의 몸통으로
성장할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이들이 꿈꾸는 삶의 모습을
먼저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트렌드 코리아 2019』 본문 중

Contents

2019 — MAY
Vol. 320

발행일

2019년 5월 2일

Publish

(주)한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신천동 7-19) 02. 3434. 5791

Publisher

이석민

Editor in chief

기획팀 신현복

Editor

기획팀 이수민

Planning & Design

경성문화사 02. 786. 2999

Print

경성문화사



Cover story

밀레니얼 가족은 함께 살고, 함
께 즐기고, 함께 가정을 꾸려
짧은 휴식에도 만족할 줄 안다.
급변하는 시대, 자연스럽게 세
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illust. 제니락

Trend

- | | | |
|----|----------------------|----------------------|
| 04 | Hot Keyword | 21세기형 新 종족, 밀레니얼 가족 |
| 06 | Power Creator | 온라인으로 원하는 인테리어를, 집닥! |
| 10 | Zoom In Trend | 프리미엄 키즈카페 '릴리팻' |
| 12 | What's On | 밀레니얼 라이프 스타일 아이템 |

Life + Live

- | | | |
|----|----------------------|------------------------|
| 14 | Style Guide | 안성향 과장의 결혼식 하객 패션 스타일링 |
| 18 | Tasty Story | 한국인의 소울푸드 '치킨' |
| 20 | Lovely Family | 삼성레트로핏 현장 김형용 대리 부부 |
| 24 | Culture Salon | '불안'도 손님이다 |
| 26 | Science Story | 모든 물질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 |
| 28 | Tourist | 베트남 하노이에서 온 편지 |

Halla + Culture

- | | | |
|----|-----------------------|----------------------------|
| 34 | Look Into | 하남감일 7B/L APT 현장 |
| 40 | Lead to Future | 해외사업팀의 Team Small Workshop |
| 42 | Halla Class | 세상에 하나뿐인 나무 도마 만들기 |

Halla + IN

- | | | |
|----|---------------------|--|
| 46 | Halla News | |
| 48 | Halla Board | |
| 49 | Get Healthy | |
| 50 | Notice Board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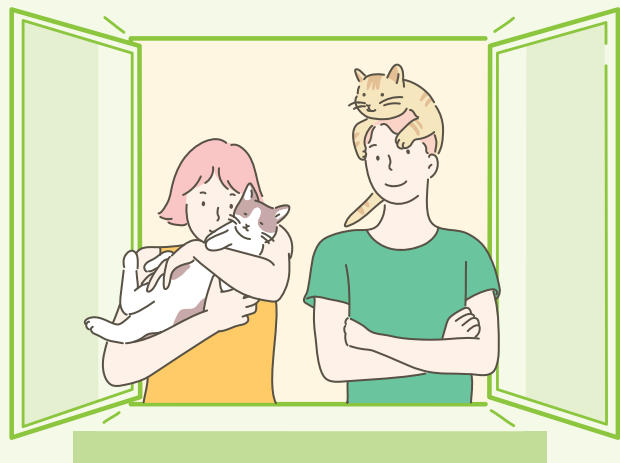
21세기형 新 종족
밀레니얼 가족

Millennial Family

‘남자는 일! 여자는 가사!’라는 고정관념을 의미하는 ‘바깥양반’과 ‘집사람’이라는 이분법은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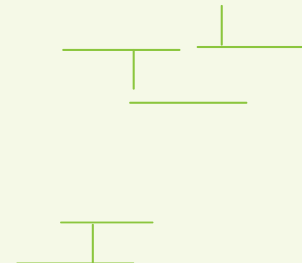
21세기형 부부는 동반자로서 개인의 공간과 시간을 서로 존중하고 집안일은 가성비있게 ‘운영’하며, 자기계발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신속하고 적당한 행복을 추구하며 슬기롭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밀레니얼 가족, 그들의 남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펴보자.



밀레니얼 가족의 탄생

밀레니얼 가족은 베이비붐 세대인 부모의 지원 아래 어릴 때부터 물질적 안정과 디지털 기술의 수혜를 입고 자란 그들이 결혼해 가정을 꾸리면서 시작되었다. 1980~90년대 생이 이 범주에 속한다. 현재 20대에서 30대 후반의 나이대인 밀레니얼 세대는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 이벤트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경험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보호 아래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다. 스마트폰과 SNS에 익숙한 이들은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해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얻고 소통하길 좋아하며, 강한 자기애와 함께 기존의 삶의 공식을 따르기보다는 나만의 기준을 세워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욕로’, ‘소확행’의 특징을 보인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이 밀레니얼 세대의 수가 그들의 부모인 베이비붐 세대를 앞지르며 시장에서 구매력이 가장 높은 고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개인으로 평가 받던 밀레니얼 세대가 그들만의 가족을 형성하면서 또 다른 소비자로 떠오른 것. 이들은 서서히 기성고객 집단을 대체해 나가며 가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집안일은 부부가 가성비 있게 처리하고, 개인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존중하며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또한 개인의 취미와 성취를 중시하며 자기 계발에 열중한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정은 희생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대충 만족할 수 있는 ‘적정 행복’의 장소다.



밀레니얼 가족이 사는 법

밀레니얼 가족은 인구구조로 보나 소비시장의 규모로 보나 향후 국내 소비시장의 몸통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 그들만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씩씩하고 슬기롭게 써내려간다.

밀레니얼 가족의 구성원들은 서로 수평관계를 유지하며, 부부는 동등하게, 자녀와는 친구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에게 가사 노동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하나의 미션으로써 ‘해야하지만 안 할수록 좋은 일’로 생각한다. 이 때문에 밀레니얼 가족은 가전제품 구매에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기성세대에게는 집 안에 꼭 있어야 할 3대 가전으로 TV, 냉장고, 세탁기를 꼽았다면, 밀레니얼 가족에게는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가 필수다. 주부 일을 대신한다고 해서 ‘가전주부’라고 불리기도 하며, 집안일을 줄여주는 신의 물건이란 의미로 ‘삼신(三新)가전’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다른 가사 노동에 비해 시간과 노동력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영역이 바로 식사 준비다. 다른 일은 미루거나 간헐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식사 준비만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밀레니얼 가족의 집에는 밥 잘 사주는 예쁜 엄마가 있다. 요즘 주부들은 밥상을 직접 전부 요리해서 차려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롭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요리를 전부 해내기 보다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요리에 약간의 조리 과정만 더해 시간과 노동력을 줄이고도 맛있는 요리를 그릇에 담아낸다. ‘요리 대신 조립’을 지원하는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이유다.

밀레니얼 가족은 ‘삼신가전’과 간편식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집안일을 마친 뒤 남은 시간은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한다. 자신만의 온전한 시간을 가지며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성취감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 계발에 몰입하기도 한다. 또한 방 하나를 자신의 취미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그럴 공간이 여의치 않을 때는 화장대나 책상 등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자신의 취향이 드러나는 개인 공간으로 꾸민다.



집닥 인테리어 시공 사례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명예교수이자 『마케팅 마이오피아』 논문으로 유명한 ‘시어도어 래빗(Theodore H.Levitt)’ 교수는 “드릴을 구매하는 사람은 드릴이라는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드릴로 뚫을 수 있는 구멍에 돈을 지불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제품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제품이 가져다주는 효용을 구매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밀레니얼 가족은 제품이 아니라 제품이 주는 효용을 산다. 그들을 만족시키려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정의하고 부각해야 하는 이유다. 결국 제품이 아니라 상황을 팔아야 한다는 것. 이런 방식이 낯설다면? 온라인으로 원하는 인테리어를 제공해 밀레니얼 가족의 지갑을 수시로 열게 만드는 ‘집닥’ 박성민 대표의 가치를 참고하면 좋다.

글 편집부 사진 집닥 제공

온라인으로 원하는 인테리어를, 집닥!

집닥 박성민 대표

Q. 집닥은 어떤 기업인가요.

집닥은 고객과 전국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에 론칭했으니, 벌써 4년차가 되어 가네요. 주거뿐만 아니라 카페, 식당, 병원 등의 상가 인테리어도 저희 집닥이 책임집니다. 얼마 전엔 고객과 건축사사무소, 건설업체를 연결해주는 집닥건축을 론칭해 예비건축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현재는 공유오피스, 프리미엄 독서실, 고시원 등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B2B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고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Q. 창업 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자 수와 거래액은 어느 정도까지 늘었나요.

집닥에 입점된 파트너스 시공업체는 총 600여 개에 달합니다. 누적 건적 의뢰는 13만 건, 누적 거래액은 2,000억 원을 돌파했고요. 특히 2016년 42억 원에서 2017년 246억 원, 2018년 1,200억 원을 돌파했고 지금의 추세를 이어간다면 2019년 말에는 3,000억 원을 넘어설 거라고 예상합니다.

Q. 집닥을 창업해야겠다는 생각은 언제 처음 하셨나요.

창업 전에 인테리어 관련 일을 오래 했어요. 일을 하면서 고객들이 어떤 점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알게 됐죠. 인테리어를 하는 고객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게 집닥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 회사는 현장 관리 시스템과 하자 등 모든 부분에서 고객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6

밀레니얼 가족은

제품이 주는 효용을 삽니다.
때문에 큰 집이 아니라도
나만의 공간을 꾸미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죠.

99

Q. 창업 이전에도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인테리어 시공사, 건설 시행사, 분양대행사 등 관련 사업을 오래 경영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으레 그렇듯, 몇 번의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실패를 맛봤고 100억 원 대의 부도를 맞아 신용불량자도 경험해봤죠. 그러면서도 인테리어의 끈은 놓을 수가 없었어요.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했고 개선하면 멋지게 바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고객과 시공업체 간에 상생 관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창업을 계획했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인테리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한 축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Q. 집닥의 기업가치 및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집닥의 가치 때문 아닐까요? 인테리어를 의뢰하는 고객에게 간편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새로운 터닝포인트에서 집닥을 선택하신 고객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파트너 기업

에는 더 많은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서비스 방향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고객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집닥2.0 프로젝트를 론칭하면서 '5대 안심패키지' 서비스를 공개했어요. 시공 현장을 방문해 공사 상황을 체크하고 조율하는 안심 집닥맨과 공사 대금을 예치하고 단계별로 분할 지급하는 안심 예치제,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3년을 지원하는 안심 A/S, 공사 의뢰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일대일로 집중 상담하는 안심 1:1 전담제와 공사 결과가 상이한 경우 원하는 인테리어로 재시공해주는 안심 품질 재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고객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집닥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예쁘게 봐주신다고 생각해요.

Q. 집닥의 성공 배경 중 하나는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예쁘게 꾸미고 싶은 밀레니얼 가족의 특성이 작용한다고 보는데요. 대표님의 생각은요.

동의합니다.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주거환경 중요성 인지 등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니즈가 커진 이유라고 생각해요. 집닥

이 지난 4년간 쌓아온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자가 못 지않게 전셋집 인테리어 의뢰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비교적 단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주방이 가장 많았죠. 전셋집 특성상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어려운데 최근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기도 하고, 또 집주인이 전셋집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트렌디한 인테리어로 교체,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Q. ㈜한라와 스타트업 기업이 인테리어 플랫폼 내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현재 시공사례를 중심으로 비포&에프터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어요. 집닥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고객들의 생생한 후기도 공유하면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죠.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플랫폼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좋을 거예요. 이제는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건설과 인테리어 양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서로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한편,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사회 공헌사업을 기획하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Q. 앞으로 집닥이 추구해나갈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 중인 다른 프로젝트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저희 집닥은 최근에 B2C에 이어 B2B 인테리어로도 영역을 넓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어요. 올 초엔 가맹점주에게는 신뢰있는 인테리어 업체 선택을, 가맹 본사에게는 지속적인 사후관리(A/S)를, 시공업체에는 안전한 공사 수주를 제공할 목적으로 클린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죠. 이 결과, 최근 공유오피스와 프리미엄 독서실, 고시원 등 프랜차이즈 업체와 인테리어 제휴 계약을 맺어 지속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협업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주거 인테리어 개선 프로젝트도 진행했어요. 또 의료보조기와 안전시설 등 제품과 시설도 추가로 지원하려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후원금도 모으고 있죠. 집닥은 앞으로도 고객을 만족시키는 한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집닥 Project



인테리어 비교견적 O2O 전문기업 집닥이 B2B 사업 확장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박성민 집닥 대표는 “향후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에게 많은 인테리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비즈니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With — 르호봇 비즈니스 센터 운영사 '르호봇 비즈니스인큐베이터'

집닥의 인테리어 중개 서비스와 르호봇의 오피스 인프라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집닥은 르호봇의 대규모 공유오피스 인테리어 수주를 통해 기존 개인 자영업자 위주의 인테리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 발판을 마련했다. 르호봇 또한 공유오피스에 특화된 인테리어 개발을 진행하고 입주사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ith — 아이엔지스토리 프리미엄 독서실 브랜드 '작심'

집닥은 최근 신개념 학습공간 인테리어를 선보이기 위해 프리미엄 독서실 브랜드 작심과 협약을 맺었다. 이에 집닥은 전국 250여개의 작심독서실, 작심스터디카페를 비롯해 작심스페이스(공유오피스), 작심하우스(프리미엄 고시원) 등의 사후관리를 포함한 학습 공간 인테리어 전반을 담당하게 됐다. 작심독서실 역시 집닥만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1인 주거 공간의 문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밥 잘 사주는 엄마’들의 모임 성지, ‘밀레니얼 가족’의 나들이 핫 플레이스 등 키즈카페를 지칭하는 말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좋기에, 주중 · 주말 가리지 않고 아이와 부모들로 붐비는 걸까. ‘밀레니얼 가족’의 관심을 모으고 발길을 끄는 프리미엄 키즈카페 ‘릴리풋’을 찾았다.

글 편집부 사진 릴리풋 제공

엄마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공간

프리미엄 키즈카페 ‘릴리풋’

레뮤엘 걸리버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있던 중 물리학, 수학, 항해술을 배우고 여행을 떠난다. 배가 좌초되어 릴리풋(Lilliput)이라는 소인국에 도착하면서 모험이 펼쳐지는데...

-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중에서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키운다

릴리풋은 걸리버 여행기의 소인국 ‘릴리풋(Lilliput)’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소인들이 살고 있는 상상의 나라’라는 콘셉트에 맞게 공간을 꾸몄는데, 이곳을 방문하는 거인(부모)들은 소인(아이)들보다 더 즐거워 보인다.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릴리풋을 어른 아이 모두 만족할만한 키즈카페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모형, 빨강 노랑 파랑 등 원색을 이용한 밝은 인테리어, 지치지 않는 에너지이저 아이들을 위한 넓은 공간 등 오직 아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키즈카페에 오면 아이들은 즐겁고 신나지만, 함께하는 부모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다.

그래서 릴리풋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서도 부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부모들에게 멋과 여유를 선사하는 공간을 선물하겠다는 릴리풋만의 가치가 만들어진 순간이다.



음식과 놀잇감, 모두 최고를 추구하다

릴리풋은 최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과 놀이 시설이 결합된 프리미엄 키즈카페다.

과학적인 설계를 통해 크지 않은 공간에서도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다. 놀이 공간이 한눈에 들어오는 설계를 통해 엄마는 아이의 노는 모습을 자리에서 지켜보며 최고급 수준의 이탈리아 요리를 즐길 수 있다. 실제로 릴리풋의 모든 음식은 이탈리아 국제요리학교 출신 셰프가 레시피를 개발했고, 아이와 함께 먹는 음식이기에 화학조미료와 인공 색소, 방부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소스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직접 개발한 수제 소스를 사용한다. 특히 상위 7%의 생두인 스페셜티 커피가 부모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66
아이들을 위한 약속 ‘청결’
부모님을 위한 약속 ‘맛과 정상’으로
밀레니얼 가족을 만족시키다.

99

보기 좋은 키즈카페가 놀기도 좋다

릴리풋 매장은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의 프리미엄 지점과 복유럽풍의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의 스탠다드 지점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릴리풋은 놀이기구 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특허는 ‘실내 키즈카페 테마놀이방 시설’과 ‘유아 놀이용 무동력 자동차트랙’으로, 이를 활용해 작은 평수에서도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를 연동, 압축적으로 배치했다.

릴리풋에 있는 놀이기구들은 아이들의 시선에서 재미를 추구했다. 릴리풋에 방문한 아이들은 블링블링 화장품 매장을 묘사한 ‘살롱 드 릴리풋’, 오르골 음악과 함께 돌아가는 ‘회전목마’,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 폭신한 쿠션으로 된 ‘정글짐’, 알록달록 나만의 네일아트를 즐길 수 있는 ‘네일샵’과 분위기 있는 ‘캠핑놀이’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이용하며 동심을 키울 수 있다.

릴리풋 Info

매장 현황 국내·외 총 57개(2018/12 기준) 홈페이지 www.lilliput.co.kr 입장료 어린이 - 15,000원(기본 2시간, 이후 10분당 1000원 추가 요금, 어린이 유기농 주스 제공) / 어른 - 1인 1주문(식사 또는 음료)



2019년 가장 핫한 화두는 '밀레니얼 가족'이다. 온라인을 통해 전날 주문하고 아침에 배송 받은 미역국과 케이크로 아침을 차리는 엄마와 이를 먹는 가족들'. 특히 이들의 생활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필수 가전제품의 변화다. 밀레니얼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가전제품과 알아두면 쓸 데 있는 핫 아이템을 소개한다.

글 편집부

밀레니얼 라이프 스타일 아이템

Trend setter's Choice

10분 돌리고 식탁에 올리면 끝
에어프라이어

요리의 번거로운 과정을 도와주는 조리 가전은 주방 일에 대한 부담을 덜고 요리를 즐기도록 유도한다. 다양한 식재료를 기름 없이도 바삭하게 튀겨주는 에어프라이어가 최근 인기 급상승 중이다. 최초로 에어프라이어를 선보인 필립스만의 고유한 터보스타 기술이 열을 고르게 전달해 짧은 시간에 음식을 골고루 익혀준다. 음식을 담는 바구니는 기름때가 붙지 않도록 특수 코팅해 세척하기가 간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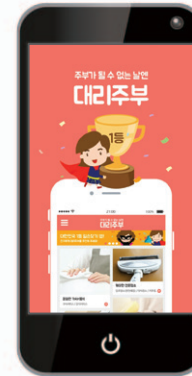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일손을 덜어주는 똑똑한
식기세척기

밀레니얼 가족은 외식을 하거나 가정간편식을 적극 활용해 식탁을 차린다. 신속하고 알찬 식탁 차림만큼이나 설거지도 효율적으로 해결하길 원한다. 밀레빌트인 식기세척기는 문을 두 번 똑똑 두드리면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한 제품이다. 손잡이가 없어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며,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 작동하는 에코 스타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밀레 빌트인 식기세척기



가사도우미 앱 '대리주부'

맞벌이 부부에게 유용한
생활 맞춤형 앱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한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가성비를 따져 외부에 맡긴다.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희생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뭉친 가족은 집안 일 또한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밀레니얼 가족을 저격한 생활 맞춤형 앱 '대리주부'는 다운로드 114만 건을 기록하며 모바일 앱 업계 '큰손'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리주부' 앱 이용자의 80%는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로, 집에 직접 방문하는 가사도우미의 경우 프로필, 사진, 경력은 물론 월 1회 고객들의 평가도 공개해 신뢰도를 높였다.



삼성전자 의류건조기 그랑데

때 아닌 미세먼지에 뜬 환경가전
의류건조기

세탁실을 창고처럼 여기는 시대는 지났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멋스럽고 깔끔하게 빌트인으로 배치하여 공간 효율을 높이기도 한다. 특히 의류건조기는 먼지 포비아 시대를 살아가는 밀레니얼 가족에게 필수 아이템이다. 삼성전자의 그랑데 의류건조기는 햇살과 바람으로 말린 듯한 자연건조 효과로 옷감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두꺼운 이불까지 넉넉히 건조시킬 수 있다.

<사계> 기자가 소개하는
이달의 즐길거리

안전보건팀 **이진민** 대리

포근한 봄날,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들지만 너무 먼 곳으로 가기엔 엄두가 안 난다면 북한 강변을 따라 열리는 양평의 유명한 프리마켓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문호리 리버마켓은 2014년 문호리에 정착한 예술인들이 소규모로 시작했던 프리마켓이 현재는 입소문이 나 170여 셀러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먹을거리부터 수공예품까지 순수 농사짓거나 만든 품목들을 프리마켓에서 주로 판매합니다. 볼거리도 많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체험거리도 많아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봄나들이 명소로 강력 추천합니다.



양평 문호리 리버마켓

매월 셋째주 토·일(오전 10시~오후 6시)
경기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941
www.rivermarket.co.kr

세상이 온통 눈부시게 빛나는 계절을 기다려왔다. 연분홍 장미가 비로소 꽃잎을 활짝 펼친 5월, 곳곳에서 결혼 소식이 들려오는 까닭이다. 이토록 찬란한 봄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두 사람을 응원하는 자리에 함께한다면 대충 걸칠 수 없는 법. 평소 옷 잘 입기로 소문난 안성향 Let's사업팀 과장이 센스 만점 하객 룩의 정석에 도전했다.

글 편집부 사진 황원 스타일링 이서연 의상 협찬 현대아울렛 가산점 브랜드 협찬 앤드 지(And Z)

본격 웨딩 시즌

센스 만점 하객 패션 스타일링

Let's사업팀 안성향 과장

Style.1

절대 틀릴 수 없는 드레스 코드,
클래식은 영원하다

결혼식 하객 룩의 기본은 역시 슈트다. 여기에 약간 더워지는 5월 날씨를 고려해 통풍이 잘되고 활동성이 좋은 에어매쉬 소재 플라이 셋업 재킷과 팬츠로 라인을 뽐내보는 건 어떨까. 한결 여유로워 보이는 헨리넥 먼 스판 화이트 셔츠를 매칭한다면 절대 틀리지 않는 드레스 코드, 완성이다.

슈트 에어매쉬 소재 플라이 셋업 재킷 24만 9,000원 (아울렛가 19만 9,000원 / 세트 기준) 에어매쉬 소재 플라이 셋업 팬츠 11만 2,000원 **셔츠** 헨리넥 먼 스판 화이트 셔츠 8만 7,000원(아울렛가 6만 9,600원)



Style.2

봄을 닮은 화사한 컬러로 기분 좋은 날의 분위기를 한껏 업(UP)!

무난하다는 이유로 고집하는 칙칙한 색상보단 보는 이로 하여금 기분 좋은 날의 분위기를 물씬 느끼게 하는 밝은 컬러가 하객 룩의 진정한 매너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봄을 닮은 화사한 분홍색의 린넨 스트라이프 밴드카라 캐주얼 셔츠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 재킷 대신 마무리한 부드러운 촉감의 헨리넥 니트 베스트는 데드한 스타일을 한껏 돋보이게 해줄 것이다.

셔츠 린넨 스트라이프 밴드카라 캐주얼 셔츠 11만 9,000원(아울렛가 5만 9,500원) **조끼** 헨리넥 니트 베스트 8만 7,000원(아울렛가 3만 9,000원)

Shopping Guide

현대시티아울렛 가산점 5월 행사

명품 선글라스 균일가전

기간 4.26(금)~5.9(목)

장소 1층 행사장 및 본 매장

브랜드 구찌, 펜디, 칼라거펠트 외

탠디 슈즈 79/89,000원 균일가전

기간 5.3(금)~5.9(목)

장소 2층 특설 행사장

어버이날 여성 캐주얼 기프트전

기간 5.6(월)~5.9(목)

장소 3층 대행사장

내용 스위트미스/기비&키이스 29,000~

제니 by 금강그룹전 up to 70%

기간 5.18(토)~5.19(일)

장소 1층 옥외 행사장

이벤트 100족 한정 균일가 39,000원

가정의 달 기념 골프웨어 up to 80%

기간 5.17(금)~5.23(목)

장소 6층 대행사장

브랜드 와이드앵글, 팬텀, 까스텔바작, 슈페리어, 링스 외

“지난 2007년에 동기와 함께
쿠킹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사계>에 제 모습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카메라 앞에 선 건
처음이라 긴장했어요.
왠지 웨딩사진 찍던 때가 생각나네요.
먼저 결혼해본 사람으로서의 조언이요?
음, 세상에 태어나 부부로 만난다는 건
대단한 인연이잖아요.
자기 고집만 내세우기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을 앞세우면 오래도록
알콩달콩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Style.3

시간이 지나도 고급스러운 멋으로
앨범 속에 남는 패션

하객으로 참여해 단체 사진을 찍으면 당시의 패
션이 앨범에 두고두고 남기 마련이다. 그런 점
에서 시간이 흘러도 고급스러운 멋으로 빛을 발
하는 글렌체크 린넨혼방 캐주얼 자켓은 후회 없
는 선택이다. 포켓 포인트 세미 오버 반팔 티셔
츠로 포인트를 준 다음 테이퍼드 핏 치노팬츠를
구성하면 깔끔하고도 단정하기 이를 데 없다.

재킷 글렌체크 린넨혼방 캐주얼 자켓 29만 9,000
원(아울렛가 23만 9,200원) 셔츠 포켓 포인트 세
미 오버 반팔 티셔츠 4만 9,000원(아울렛가 3만
9,200원) 팬츠 테이퍼드 핏 치노팬츠 11만 2,000
원(아울렛가 5만 9,000원)



Style.4

도시적인 감성과 발랄한 느낌을 동시에 살리는 모던 스타일

세련된 가디건 하나는 열 재킷 부럽지 않다. 몸에 맞춘 듯 선이 똑 떨어지지만 불편하지 않은 밀라노 조직 아웃포켓 자켓형 가디건이 그 주인공이다. 핏을 살리려면 포켓은 비워두는 게 필수다. 더불어 스트라이프 오버핏 반팔 티셔츠로 경쾌한 색채감을 살리면 도시적인 감성과 발랄한 느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가디건 밀라노 조직 아웃포켓 자켓형 가디건 16만 2,000원(아울렛가 5만 9,000원) 셔츠 스트라이프 오버핏 반팔 티셔츠 6만 2,000원(아울렛가 4만 9,600원)

한국인의 소울푸드 ‘치킨’

어릴 적 아버지께서
퇴근길에 사들고 오시던
통닭 내음은 수십 년이 지나도
향수(鄉愁)처럼 그림다.
잠결에도 아버지 손에 들린
통닭 냄새를 맡곤 잠에서 깨어 나가
눈을 채 뜨지도 못하고 닭을 씹었다.
누런 종이봉투 안에는
당시 귀한 비닐봉지로
닭을 한번 씻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이 종이봉투에 배어나오곤 했다.
한 손에는 바삭하게
튀겨진 닭다리를 잡고
다른 손엔 아삭한 무를 한 입 먹던
그 시절을 지나
지금 우리는
‘치킨공화국’에서 살고 있다.
글 박찬일 요리연구가



66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에서 잘리면
치킨집이나 차리면
되지’하던 것도
이제 옛말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치킨을 사랑한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도 치킨을 즐기고,
‘반반에 무 많이’는
배달 주문의
기본이 되었다.

99

‘통닭’이 ‘치즈님’이 되기까지

우리나라에 전기구이 통닭이 들어온 건 1960년대다. 당시 최초로 시작한 업체가 지금도 성업하고, 나중에 유사 업체도 많이 생겼다. 그러더니 ‘치킨’의 시대가 왔다. 치킨은 닭이라는 이름을 밀어냈다. 1970년대에 치킨, 즉 튀긴 통닭의 시대가 시작됐다. 당시 통닭은 대체로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미국식의 파우더 반죽을 발라 고압 기름 솥에 튀기는 것,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파는 간단한 통닭이었다. 먼저 시장식은 밀가루나 전분 정도를 발라 기름솥에 그대로 튀겼다. 파우더 반죽은 현대의 치킨과 유사하다. 요즘처럼 물결무늬니 하는 것처럼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반죽 물을 입히는 것은 이미 그때 시작됐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압력 기름솥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속까지 고루 튀겨지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최상의 맛을 냈다.

당시만 해도 ‘치즈님’의 세상은 아니었다. 통닭과 치킨이 병존했고 닭이 그리 싸지 않아서 누구나 영접할 수는 없었다. 중산층, 아버지 월급날, 어린이날 등 이러저러한 이유가 필요했다. 배달은 1970년대~80년대 초반까지는 거의 드물었고 치킨집은 어른들의 술집이기도 했다. 값이 꽤 나갔다는 뜻이다. 생맥주 호프집의 대박 인기와 함께 치킨도 안주로 잘 팔렸다. 소금과 ‘사우전아일랜드 드레싱’의 양배추를 곁들여줬다. 막 청년기에 들어섰던 나는 친구들과 돈이 있으면 치킨집에 갔다. 생맥주는 비싸서 소주를 마시기도 했다. 같은 돈으로 알코올의 총량이 많았으니까, 더 빨리 취할 수 있었다.

양계산업은 지속적으로 발달했다. 이미 1960년대에 정부는 양계를 집중 육성했다. 계란이 귀했고, 닭도 비쌌으니까. 시인 김수영이 생계를 위해 양계장을 했던 것도 그 시절이었다. 닭은 당시만 해도 90일 이상 길러야 시중에 나왔다. 주로 백숙으로 닭을 먹었으므로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했다. 또 기술이 부족해 그 정도는 길러야 먹을 만큼 커졌다.

그러다가 점차 닭이 작아졌다. 아니, 작은 닭을 통째로 출하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과거처럼 백숙이 아니라 튀긴 닭이 인기를 끌면서

닭의 크기가 어느 정도 작아야 더 맛이 좋았다.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먹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식습관도 작은 닭의 생산을 부추겼다.

치킨공화국을 넘어 한류가 된 치킨

개그맨 최양락 씨의 멋진 CM송 “00카나가 찾아왔어 요~” 하는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이 꽤 많을 것이다. 바야흐로 프랜차이즈와 배달의 시대가 도래한 때이다. ‘프라이드치킨파’와 ‘양념고수파’의 입맛을 돋우는 수많은 브랜드가 생겨나면서 날로 경쟁이 격화됐다. 닭을 미국식으로 튀기는 기술이 전파됐고, 더 바삭하고 풍성해 보이는 튀긴 닭이 대중을 사로잡았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닭을 기르는 사료의 유입이 많아지고 산업 자체가 크게 성장했다. 외식의 성장도 기여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프라이드치킨’을 쉽고 저렴하고 빠르게 즐겨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치킨이 국민 간식으로 통하게 된 결정적인 시기는 1990년대다. 1997년을 기점으로 외환위기 사태가 터졌다. 중도 퇴직하게 된 수많은 명예퇴직자들이 너도나도 치킨집을 열었다. 당시 대거 쏟아져 나온 ‘명퇴자’들이 ‘제2의 인생’과 생계를 위해 요식업에 뛰어 들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에서 잘리면 치킨집이나 차리면 되지’하던 것도 이제 옛말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치킨을 사랑한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도 치킨을 즐기고, ‘반반에 무 많이’는 배달 주문의 기본이 되었다.

몇 년 전부터 한류 열풍을 타고 ‘치맥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해오고 있다. 치킨에 생맥주를 곁들이는 모습이 드라마와 예능에 노출되면서 이른바 ‘K-food’로 자리매김했음은 물론, 철마다 전국 각지에서는 치맥 축제며 이벤트가 열리고 있다.

치킨은 이제 ‘국민 간식’을 넘어 한류로 거듭났다는 생각이 들자 새삼 프라이드 닭다리 하나를 든 손이 공손해짐을 느낀다. 이토록 작은 나의 즐거움이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프리즘이 되었으며, 한국인의 입맛을 해석하는 ‘바로미터’가 되었다. 치킨은 늘 옳다는 말이 진리이긴 한가 보다.



어쩐지 고소하면서 달콤한 내음이 폴폴 풍긴다 했다. 그도 그럴 듯이 사방에 개소금이 만발하고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신혼부부란다. 다정히 손잡고 나타난 오늘의 주인공, 삼성레트로핏 현장 김형용 대리와 아내 유정아 씨가 드디어 카메라 앞에 섰다. 1년 전 웨딩 화보를 찍으면서 아쉬웠던 점을 이번 기회에 만회해보겠다며 자못 결연한 다짐을 밝힌다.

글 편집부 사진 황원 스타일링 이서연



눈만 마주쳐도 하트 뿜뿜

우리의 특별한 결혼 1주년!

삼성레트로핏 현장 **김형용** 대리 부부

생각만으로도 설레는, 신혼

갓 피어난 벚꽃처럼 눈부시도록 화사하다. 발그레한 봄빛을 닮은 블라우스와 나폴거리하는 하얀 스커트를 입고 등장한 아내의 모습에 김형용 대리가 새삼 감탄사를 연발하는 이유다. 그 반응에 수줍게 미소 짓는 유정아 씨가 섬세한 손길로 남편의 옷깃을 매만진다.

언뜻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연인으로 보이지만, 올해로 결혼한 지 만 1년째다. 알고 보니 연상연하 부부라는데, 어른스러운 김 대리가 여러모로 잘 리드하고 챙기는 타입이기에 오히려 수고로운 점이 없다며 정아 씨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남편이 저보다 한 살 연하인데 어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의젓해서 오히려 기대고 싶은 만큼 든

든했거든요. 또, 자기 사람이라고 여기면 제대로 아껴주고 사람 관계에서 허술하게 구는 법이 없으니 항상 안심이죠.(웃음)”

그렇다면 김형용 대리는 아내의 어떤 점에 푹 빠진 걸까. 정아 씨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그가 쉬이 입을 떼지 못한다. 사랑하는 이유를 고작 한두 가지만 꼽긴 어려운 탓이다. 진중한 성품답게 곰곰이 생각한 끝에 표현한 마음이 참으로 담백하다.

“첫눈에 아내의 밝고 순수한 성격에 반했어요. 상냥하고 예쁜 건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웃음) 그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해 보건 분야에서 꾸준히 일할 만큼 성실해요. 허세나 낭비 없이 가족에게 잘하니 어딜 가나 자랑하고 싶은 부인입니다.”

주고받는 애정 릴레이 속에 눈빛이 오가자 웬지 분위기가 말랑말랑해지더니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유쾌한 웃음이 터진다. 그렇다. 이들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더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신혼이다.

지인이 소개하고 한라가 이어준 인연

그런데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게 있었다. 바로 카메라를 보면 저도 모르게 굳어버리는 표정이다. 따스한 커피 한 모금으로 긴장을 풀고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한결 당당해진 자세와 웃음기 띤 얼굴에 주위마저 신기하리만치 환해졌다. 함께하면 그야말로 시너지가 두 배인 김 대리님과 정아 씨의 연애 시절은 과연 어땠을까.

“지인의 소개로 각자 사회에 첫발을 내딛던 시기에 만났어요. 지방 현장과 아내가 사는 경기 안산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만 3년 넘게 했죠. 한 달에 두 번씩 만났는데 자주 보지 못하니 그만큼 애뒀더라고요.”

건설 현장 특성상 경남 진주, 김해 등 전국 각지를 누벼야 하는 사정을 이해하며 물심양면으로 내조한 정아 씨의 마음 씬씬이에 하늘이 감동한 걸까. 먼 거리를 달려 한 번씩 보고 아쉽게 돌아서는 연애는 3년이 넘어서자 의외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드디어 수도권 현장에 발령받아 더욱 자주 만날 수 있게 된 거다. 이때를 틈타 신속하게 결혼을 추진하여 둘은 부부의 연을 맺었다.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 같이 살 운명이었다며 허허 웃는 남편을 믿지 않게 톡 친 정아 씨의 예쁜 눈이 문득



동그래진다. 뜻밖의 발령 덕분에 배우자로 이어진 셈이니 마땅히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이에 김 대리 역시 맛장구치며 고개를 끄덕인다.

맞벌이 부부가 사이좋게 사는 법

사귄 때는 일부러 공들여 치장하고, 내숭도 떨기 마련이다. 바깥 말하면 상대의 진면목을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니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1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아본 감회는 특별할 터다.

“같이 지내면 숨기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실망한 건 아니고요. 서로의 다른 점을 양해하며 부부애가 더욱 깊어졌어요. 또, 양가 부모님에게 각자 해야 할 도리를 잘하고 있어서 내리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웃음)”
맞벌이로 생활하기에 살림에 신경 쓰기 쉽지 않을 텐데 의외로 그 부분에 있어선 충돌한 적 없다는 부부의 철칙은 ‘보는 사람이 먼저 하자’다. 평일엔 비교적 짬 내기 쉬운 정아 씨가 도맡고, 주말이면 김 대리가 주로 해결하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자잘한 데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비결이다.

“결혼해보니 언제까지가 신혼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희는 매일매일이 신혼이고 싶어요.(웃음)”

그 말대로라면 죽을 때까지 신혼이어야겠다는 아내의 너스레에 진지하게 대답한 남편도 웃는다. 농담처럼 맞받아쳤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다. 지금 다잡은 손을 언제까지라도 놓지 않은 신혼으로 오래 함께하리란 걸.



우리 부부엔
참으로 선물 같은 이벤트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열심히 웃었는데
사진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내에겐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넓은 이해심으로 포용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항상 곁에서 응원해줬기에
어떤 순간에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김형용 대리

사실 결혼기념일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매년 이날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되새겨 보는 거죠.
올해 이벤트는 평생을 두고
기억에 남을 수 있게 잘 해냈으니
앞으로도 해마다 이 순간을 기억하며
맞잡은 손 놓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아내 유정아 씨



不安

살아있는 것들의 숙명

‘불안’도 손님이다

사람들마다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다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도 있고,

숨이 고르게 쉬어지지 않거나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사람도 있다.

스위스의 작가 알랭 드 보통은

불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의 걱정은 독성이 매우 강해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글 최옥정 소설가

출처 『퇴근길 인문학 수업 : 전환』



실체가 없는 대상에 대한 두려운 감정

인생에는 언제나 방문객이 있다. 이들 중 불청객도 있다.

그들은 혼자 오지 않는다. 불안도 마찬가지다. 우울과 허무감, 무력감과 동행할 때가 더 많다. 그들 역시 내 인생에 찾아온 손님이다. 잘 대접해서 보내야 뒤통이 없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좌절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그것을 주시해야 한다. 불안에 앞서 나에게 보내는 경고들이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이 또한 어떻게든 지나갈 거라고 방치해선 안 된다. 강할 땐 말할 수 없이 강하지만 약할 때는 한없이 무너지는 게 사람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한 번 찾아온 방문객은 두 번 세 번 다시 찾아온다. 그들에게 왜 왔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불러서 왔다고 대답할 것이다. ‘불안’이라는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그렇지, 내가 불렀을 테지, 어찌 알고 나를 찾아 왔겠어’라고 생각하며 손바닥으로 가슴을 누르거나 족욕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뭘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격려하는 것이다. 사람들마다 인내심도 성향도 다르다. 처음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도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황소라도 잡을 듯 시작했다가 금방 시들해져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리듬을 따라가며 조율해 나가자.

66

나는 마음이 요동칠 때면

바다로 가서 파도와 마주한다.

저 파도는 뭐가 저리 힘들어서 몸부림을 치나,

저 아래 생명들은 저 파도에 어찌 견딜까.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고인 물처럼 가만히 있으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과 빛이 들도록 바다에도,

우리 마음에도 파도가 필요하다.

99

끝없는 생명 작용 태풍이 오는 이유

세상일이 대체로 그러하지만 불안 증상에도 위험한 순간이 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길을 몇 번 지나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인생이다. 불안한 상태가 극심할 때는 모든 게 한순간 무의미해지며 이대로 ‘제로’로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 그렇다 해도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고 누가 슬퍼할 것 같지도 않다.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는 늪에 빠지게 되면 여기서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자는 생각이 종종 찾아온다. 이때 자신의 생각과 기분에 대해 화들짝 놀라지 말자.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보통의 생각이다. 빈도만 다를 뿐 누구나 그런 감정을 발아래 깔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

나는 마음이 요동칠 때면 바다로 가서 파도와 마주한다. 저 파도는 뭐가 저리 힘들어서 몸부림을 치나, 저 아래 생명들은 저 파도에 어찌 견딜까. 큰 피해를 남기는 태풍 또한 이 땅의 자연 현상 중에 하나이듯, 파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고인 물처럼 가만히 있으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과 빛이 들도록 바다에도, 우리 마음에도 파도가 필요하다.

삶은 반복되는 속성이 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모두 되풀이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놀라거나 암울해하지 말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숙명과도 같으니. 너무 온몸을 부딪쳐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지 말고 역경의 바통은 다음 주자에게 넘기고 여유를 느껴 보자. 스스로에게 엄격하기보다는 관대해지기를 실천 덕목에서 첫 번째로 꼽아보도록 하자.

최근 3차원 입체 영상 영화가
많이 개봉되고 있다.
심지어 3차원 입체 영상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도 있다.
빨강과 청록 필터가 달린 안경을 쓰면
2차원 평면에 비춰진 이미지가
3차원 영상으로 살아난다.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시각 차이를 이용해
평면 영상에서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
글 유재준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모든 물질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

66
원통의
오른쪽에서 비춰진 그림자는
원 모양이지만,
왼쪽에서 비춰진 그림자는
사각형이다.

99

3D 입체 영상의 비밀



3D 입체 영상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시각 차이를 재현하여 거리 감각을 만들어내 입체감에 대한 착시를 유도한다. 뉴턴이 사과를 관측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가까운 사과와 멀리 있는 사과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 번 알아보자. 우선 사과 2개가 뉴턴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일렬로 늘어선다. 가까운 사과는 뉴턴의 5미터 앞에 있고, 멀리 있는 사과는 뉴턴으로부터 1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뉴턴의 눈에는 두 개의 사과가 겹쳐 하나로 보일 것이다. 그런데 뉴턴이 오른쪽으로 한 발 옮기면, 가까운 사과는 멀리 있는 사과의 왼쪽으로 움직인다. 반대로 뉴턴이 왼쪽으로 한 발짝 옮기며 바라보면 이번에는 가까운 사과가 멀리 있는 사과의 오른쪽으로 위치가 바뀐다. 관측자인 뉴턴의 관점이 변하면서 가깝고 먼 사과를 바라보는 상대적인 방향이 달라진다.

이번에는 뉴턴이 3개의 사과를 5미터, 10미터, 15미터 거리에 일렬로 늘어놓고 관점을 바꾸는 실험을 한다. 똑바로 보면 겹쳐 보이던 사과들은 뉴턴이 오른쪽으로 한 발짝 옮겨 바라보면 3개의 사과가 좌우로 늘어선다. 가장 가까운 5미터에 놓인 사과가 가장 왼쪽에 있고, 10미터 사과가 가운데, 그리고 15미터 사과가 맨 오른쪽에 있다. 반대로 왼쪽으로 한 발짝 옮겨서 보면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어 5미터 사과가 가장 오른쪽에 있고 15미터 사과가 왼쪽으로 간다. 15미터 떨어진 사과의 방향을 기준으로 본다면, 5미터 사과의 방향이 가장 많이 바뀌고 10미터 사과의 방향은 중간 정도다. 오른쪽-왼쪽으로 관점을 바꿔가며 사과의 위치에 대한 방향을 각도로 측정한 뉴턴은 그 방향에 대한 각도에서 각 사과의 상대적인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이처럼 뉴턴이 사과의 거리를 측정하며 사용한 방법을 시차를 이용한 거리 측정이라고 한다. 시차는 관측자가 움직이거나 관측 대상이 움직일 때 생기는 관점의 차이, 즉, 보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 뉴턴은 거리감을 느끼기 위해 오른쪽 왼쪽으로 한 발씩 옮겼는데, 그 대신에 서로 약 6.5센티미터 떨어진 사람의 두 눈을 이용하면 3차원 안경을 사용해 3차원 입체영상을 재현할 수 있다. 3차원 안경에 의존하는 입체영상은 관측자의 관점이 고정되어 있다. 입체영상을 찍는 3차원 카메라는 오른쪽-왼쪽 눈의 시각 차이에 의한 거리 감각을 고려하여 영상을 제작한다. 그래서 고정된 관점에서 '3차원 물체'의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착시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3차원 물체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3차원 안경으로는 특정 방향에서 볼 수 있는 입체감만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다.

2차원에서 3차원 상상하기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다. 시각 차이의 원리에서 알 수 있듯이 3차원 물체나 공간에 대한 인식은 관측자가 관측 대상을 움직이거나 그 주변을 돌며 얻은 다양한 관점을 통해 물체의 형태를 파악해 생기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나 물체가 본질적으로 3차원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존재라면 어떨까? 우리는 3차원보다 높은 차원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낮은 차원에 대한 추론은 3차원에서의 경험에 근거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게임보다 작아진 뉴턴이 2차원 평면 위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뉴턴은 2차원 평면에 비춰진 그림자 이미지를 통해서만 3차원 세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자의 모양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2차원 도형에 불과하다. 2차원에서는 3차원 입체영상에서 볼 수 있었던 '시차'도 기대할 수 없고 관점을 바꿀 수도 없다.

여기서 뉴턴에게 원통 모양의 3차원 물체를 주고 그 속성을 밝히라고 한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2차원 평면 스크린에 비춰진 이미지를 통해 3차원 물체를 인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차원 물체의 이미지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통의 왼쪽에서 비춰진 그림자는 원 모양이지만, 오른쪽에서 비춰진 그림자는 사각형이다. 뉴턴의 관점이 위쪽 또는 옆쪽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원통이라는 물체에 대해 '2차원 세계'의 뉴턴이 관측한 결과는 원이면서 동시에 사각형이라는 모순된 결론일 수밖에 없다.

2차원 공간의 개념에 익숙한 뉴턴의 입장에서 원과 사각형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측정 대상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원한다면 원과 사각형의 모순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개념, 즉, '원통'에 근접한 개념을 제시해야 한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온
편지

여행자의 마음으로 다시, 하노이를 ———— 걷다

하노이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았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호안 키엠 호수도, 호치민 광장도, 성 요셉 대성당도 모두 그대로입니다. 번잡한 시내를 걷다보니 십 년 전 그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두근대고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이국의 거리를 걸었죠. 세월이 흘렀지만 그 마음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여행자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오토바이로 가득한 거리를 조심스럽게 걷고 달콤한 베트남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아직 제게 이 마음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글·사진 최갑수(시인·여행작가)

하노이는 베트남 북부의 중심도시다. 가장 베트남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의 오래된 건축물들과 근대의 모습이 어우러진 풍경은 묘한 향수를 자아낸다.



Dear. 한라인

베트남 북부에 자리한 하노이는
아주 복잡한 도시입니다.

이 말은 활력이 넘친다는 뜻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언제나 바쁘고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옛 프랑스 식민지였던 까닭에

거리의 이국적인 건물로 가득하죠.

맛있는 음식도 하노이를 여행하는

또 다른 즐거움이랍니다.

달콤한 베트남식 커피를 마시며

골목 곳곳을 걷다보면

하노이의 매력에 푹 빠질 거예요.

아침, 하노이 사람들은 한국인을 좋아한답니다.

박항서 감독 때문이기도 하겠죠.

하노이, 꼭 한 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From. 최갑수



내 여행이 처음 시작된 곳

벌써 여행을 ‘업’으로 삼은 지 이십 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문득 ‘내가 지나왔던 수많은 도시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책상 위에 올려 진 지구본을 빙그르르 돌려보았습니다. 루앙프라방, 런던, 더블린, 자그레브, 프라하, 카이로, 더반, 아디스 아바바, 상하이, 도쿄, 가고시마, 애들레이드, 방콕, 자카르타, 마닐라…. 지구본을 짚어가던 손가락은 문득 한 도시의 이름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하노이였습니다. 내 여행이 처음 시작된 곳. 여행‘기자’를 그만두고 여행‘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2006년 유월 마지막 날, 첫 여행지로 하노이를 선택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딱히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계획은 거창했습니다. 하노이에서 라오까이로 가는 야간열차를 타고 아시아 최대의 소수민족 재래시장인 박하시장과 고원도시 사파를 돌아본 후 라오스 루앙프라방을 거쳐 태국 치앙마이에서 여행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 여행은 치앙마이에 닿지 못했습니다. 하노이와 사파에 예상보다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죠. 결국 하노이로 다시 돌아와 여행을 마무리 했습니다. 아직

까지도 치앙마이에는 가지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마무리하지 못한 저의 첫 여행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더 좋겠죠.

베트남 북부의 중심도시

어쨌든 첫 하노이 여행 뒤, 십삼 년의 세월이 흘렀고 얼마 전 다시 하노이를 찾았습니다. 하노이에 온 이유는 여행 취재 때문이 아닙니다. 몇몇 이름난 요리사와 동행했습니다. 파스타를 만드는 요리사도 있었고 스테이크를 굽는 요리사도 포함돼 있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맛 기행’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베트남 현지 기업의 급식 현장을 돌아보고 기존 메뉴의 개선과 새 메뉴 개발 등 급식과 관련한 여러 일을 기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흘 동안 하노이에 머물며 현지 조리사, 영양사들과 만나 음식과 요리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눴죠.

다시 찾은 하노이는 그대로였습니다. 노이바이공항에 도착해 시내로 가다 만나는 엄청난 오토바이 행렬은 멀미가 날 만큼 복잡하더군요.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호치민이 경제 중심지라면 북부의 하노이는 정치 중심지죠. 1009년 리(李) 왕조의 수도가 된 이후 지금까지 수도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사원과 오래된 건축물, 19세기 프랑스에 점령당했던 당시에 생겨난 식민지 풍 교회나 건물들이 어울려 묘한 풍



- 1 호안 키엠 호수 북쪽에 자리한 '36거리'. 이 길은 맥주거리와 동수언 시장으로 이어진다. 밤이면 낮과는 또 다른 화려한 풍경이 펼쳐진다.
- 2 시클로를 타고 하노이를 여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3 베트남 스타일 커피. 달콤한 연유를 잔뜩 넣는다.
- 4 베트남 유학의 중심 문묘.
- 5 하노이 중심에 자리한 호치민의 생가.



경을 자아냅니다. 아기자기한 건물들과 좁은 골목, 그리고 가게들이 어울려 있는 거리 풍경은 유럽과 아시아를 절묘하게 섞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노이는 ‘아시아의 파리’라고 불리기도 한다죠. 십삼 년 전 밤, 하노이를 찾았을 때에도 호안 키엠 호수 주위를 걸었고 노천 카페에서 맥주를 마셨던 것 같습니다. 호안 키엠은 환검(還劍), 즉 ‘검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 옛날, 적이 침입해 왔을 때 이 호수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나 당시 왕에게 적을 물리치라며 칼을 찼고, 왕은 그 보검으로 적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전해지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그 거북이가 다시 나타나 검을 돌려받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호수 한가운데 있는 거북상은 이 전설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네요. 호수에 떠 있는 작은 섬의 옥산사당에는 몽골과 세 번 싸워 세 번 다 이겼다는 장군과 건강을 지켜주는 약신, 학문의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와 요리사들은 호안 키엠 옆 쌀국수집에서 베트남 요리를 시켜놓고 베트남 맥주를 마셨습니다. 쌀국수면 1킬로그램의 단가가 얼마인지, 어느 한국의 유명 쌀국수 프랜차이즈의 분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왜 한국의 연유로는 베트남 커피 ‘쓰오다’의 맛이 안나는

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모든 건 저울로 달아야 해. 그
래야 맛이 나.” 파스타를 만드는 요리사가 말했습니
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
리는 계량이 중요하죠.” 스테이크를 굽는 요리사가 말
했습니다.

세월을 지나오면서 눈대중 보다는 저울을 믿게 됐습
니다. 떠도는 말보다는 종이에 적힌 숫자를 신뢰하게
됐죠. ‘알아서 주세요’, ‘적당히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
람보다 ‘일 킬로그램만 주세요’라는 사람이 더 좋더라
고요. 가능하다면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해요’라고 말
하고 싶어요. 그 ‘얼마’에 숫자를 넣을 수 있다면 좀 쉬
울 텐데. 예전엔 82만쯤 사랑했는데, 지금은 145만쯤
사랑해요. 난 당신이 347만쯤이나 싫어요. 이렇게 말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더군요. 쌀국수를 먹으며 사랑
을 이야기하기에 우리는 너무 오랜 산 것인지도 모르
겠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우리는 쌀국수와 분짜와 맥주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베트남 요리에 배가 불러왔고
팁을 넉넉하게 놓아두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변하는 건 없어. 변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파스타를 만드는 요리사가
말하더군요.

즐거웠던 하노이의 거리

‘36거리’에도 갔습니다. 호안 키엠 호수 북쪽 구시가
지에 자리하고 있는데 흔한 말로 ‘없는 거 빼고 다 있
는’ 곳이죠. 이곳은 당신도 틀림없이 좋아할 겁니다.
36거리는 13세기, 하노이에 조성돼 있던 36개의 상
인 조직이 각각 한 개 거리씩 맡아서 정착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방콕의 카오산 로드처럼 외국인 여행자가 밀집하는
곳이죠. 골목마다 주민과 여행자, 시클로, 오토바이가
한데 모여 복닥거립니다. 베트남 전통양식의 건물에
민속 공예품 상점과 잡화점, 독특한 분위기의 식당과
카페가 들어서 있죠.

길을 걷다보면 동쑤언 시장을 만납니다. 베트남 북부
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시장입니다. 건어물, 과일과
의류 등 온갖 생필품을 팝니다. 옛날엔, 그러니까 십



1 하노이 거리의 노점상.
각종 과일과 채소를 판다.

2 하노이 동쑤언 시장에서
본 전통탈. 익살스러우면서도 약간은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다.

3 오토바이로 복잡한 하노이 거리.

4 하노이 거리 곳곳에는
노천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3

삼 년 전, 처음 하노이를 찾았을 땐 이 거리가 참 좋았
죠. 커다란 망원렌즈를 달고 이 골목 구석구석을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왜 그렇게 사진을 찍어댔
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35mm 렌즈를 단 조그만 카
메라 하나가 어깨에 걸려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웃고 떠들며 하노이를 돌아다녔습
니다. 아침이면 안개 가득한 호안 키엠 호수를 산책했
고 낮 동안에는 하노이 이곳저곳을 걸어 다녔죠.
문묘, 호치민 광장, 성 요셉 대성당 등등. 수상인형극
도 보았고 시클로도 탔습니다. 노련한 시클로 운전수
는 하노이 구석구석으로 저희를 데려갔습니다. 황갈
색톤의 빌딩과 프랑스풍의 카페들, 근사한 레스토랑
과 бага 잔뜩 몰려 있는 거리를 지났고, 베트남식 가
옥이 즐비한 골목을 스쳐가기도 했죠. 마음에 드는 풍
경을 만나면 시클로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길을 걷다보니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작정
악수를 청하더군요. 그들은 박항서 감독의 이름을 말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스즈키컵 우승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기분이 좋아졌
고 그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조금 더 깊은 눈빛을 가지게 되었고

오늘이 하노이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지금 하
노이 구시가지의 어느 쌀국수집에서 쌀국수를 먹고
있습니다. 국물의 온도는 적당합니다. 육수 맛은 깊고
요, 면은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쇠고기가 푸짐하게 올
라가 있네요.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켜고 쌀국수 한 젓
가락을 집어 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여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선택
을 해왔습니다. 걸어야 할 걸음을 착실하게 걷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것이라 믿고 걸어 왔습니다. 그
렇게 우리는 조금 더 어른이 됐고, 조금 더 다른 얼굴
을 갖게 됐고, 조금 더 깊은 눈빛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생을 더 가깝게 여기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서로의 침묵을 못견뎌하고 외
로움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서로
를 같은 방향으로 사랑하고 있죠. 하노이에서 생각합
니다. 다음 하노이 여행은 당신과 함께 할 것이고 우
리는 함께 오래오래 머물 것입니다. 여행과 삶은 변했
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4



오바마 대통령이 다녀간 그곳!

호잉 리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분짜 가게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버락 오
바마가 다녀갔죠. 하노이에서 딱 한 번만 분짜를 먹을 수 있다면 무조건 이 집에 가야 합
니다. 추천 메뉴는 오바마 세트. 맥주와 분짜 그리고 냄이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정우 과장, 김태영 부장, 정석주 차장, 이태동 과장, 김근희 부장, 윤이현 사원, 김희종 대리, 김동인 사원, 안효춘 사원, 김영조 과장, 손영석 소장, 임항 대리, 최은진 사원, 정은영 사원, 이영근 대리, 김형석 과장, 김현철 차장

하남감일 7B/L APT 현장

강한 책임감으로, 신뢰를 쌓고 믿음을 얻다

모범적인 태도로 믿음을 얻고 있는 '하남감일 B7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감일 택지지구 내 '첫째'라서 그런지 뒤편지 척척, 혼자서도 잘해내고 있다. 첫째들은 으레 혼자 힘으로 적응해 나가며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는 법. 아파트도 마찬가지가 보다. 하남감일 택지지구의 첫째 '하남감일 7B/L APT 현장'을 찾았다.

글 편집부 사진 고인순

서울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과 인접해 있고 캐슬렉스 골프장을 끼고 있는 쾌적한 주거단지 준공이 코앞이다. 지하3층~지상29층, 총 93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8개 동으로 구성된 하남감일 스위트시티(B7)는 대지면적 48,113㎡에 연면적 142,744㎡로 택지 지구 내 큰 규모를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 송파, 강동과 맞닿은 강남생활권에 터널 하나만 지나면 위례 신도시와 연결되는 등 편리한 교통망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서면서 조성되는 우수한 교육환경 또한 매력적이다. 실제 하남 감일지구의 잠재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른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과 연계돼 서울 동측 최고의 신흥 주거벨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다

현재 하남감일 B7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의 공정률은 99%에 달한다. 건축공사에서는 디지털도어락과 각종 하드웨어, 문주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며 기계공사와 토목공사 역시 잔손 보기 작업 단계로, 기계공사 파트는 가스쿱 탐과 음식물 탈수기 설치 작업을, 토목 분야에서는 도로용 경계석과 블록 설치 작업에 한창이다.

“저희 B7블록은 감일택지지구 내에서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가 입주하는 ‘첫 번째’ 단지입니다. 때문에 하남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와 기관,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죠. 더구나 도로 등 여타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물리적·심리적인 측면에서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을 총괄하는 손영석 소장의 설명이다.

손 소장의 설명대로 하남 감일지구 내에서 뭐든지 ‘처음, 첫 주자’였던 B7블록 건설 현장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부담감이 상당했다.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라는 발주처의 지침을 숙지하고 주변 공구와의 협의를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또 공사 초창기였던 2017년에 우천일수가 급증함에 따른 공기지연, 지형여건으로 인한 공사 차량의 진입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인력과 자재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후속 공정 지연방지대책을 수립해 대안을 마련했다. 또 후속공정 조기 투입을 통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해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힘썼다.

이에 6월 말 입주까지 문제없이 공사를 끝마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얻어낸 성과인 셈이다.

중심제 맞춤 입찰로 날개를 달다

이번 하남감일 B7블럭 아파트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도에 기반해 낙찰자를 선정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낙찰자 선정 시 가격점수 이외에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점수를 합산해 최고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



66
비온 뒤 더 단단해지는 땅처럼
(주)한라의 시공능력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 강해집니다.
99



저가 낙찰제로 인한 덤핑 낙찰, 부실 공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실행 및 원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적정 수익성 확보 여건이 개선돼 업계의 적자 시공 우려가 줄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주)한라 역시 성공적인 제도 적응력을 선보이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후 (주)한라는 LH에서 발주한 경남 김해 진영2 B6블록 아파트 건설 공사 1공구, 경기도 파주 운정 A21블록 아파트(행복주택) 건설공사 17공구 등을 꾸준히 수주해 왔다. 올 2월에도 김포~파주 고속도로 공사(4공구) 수주에 성공하며 (주)한라의 수주 역량을 뽐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주가 기대되는 이유다.

|| interview



어려움
함께 이겨낸 직원들,
사랑합니다

손영석 소장

하남감일 택지지구에는 많은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B7블록은 첫 번째로 시공에 들어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단지라는 데 의미가 큼니다.

저와 직원들은 모든 처음을 함께했습니다. 하남감일 지구의 시공 매뉴얼을 만들었고, 안전점검 첫 사례가 됐죠. 또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을 닦았고, 공정마다 검사리스트를 제작해 내와 회의를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라는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제가 꼽는 (주)한라의 장점은 ‘유연함’입니다. 다른 시공사와 차별화되는 점도 여기에 있죠. 무조건적인 시공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입주자들의 편의와 안전에 더 좋은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업그레이드 시킨 게 (주)한라의 평판을 높이는 데 주효했습니다.

실제 B7블록 공사에서도 외부 디자인 설계를 변경해 입주자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하자 발생요인을 사전분석하고 발주처 협의하에 설계변경을 실시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할 수 있었어요. 다 직원들 덕분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던가요? 이제 준공을 앞둔 B7블록 현장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벅차웁니다. 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며 설렘 입주자들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미소 짓게 되죠.

32개월간 준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준 직원들 모두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Q.
현장에서
우리팀이 하는
역할을

신체부위에
비유하자면
어디인가요.

살랑거리는 바람 한 줄기에
마치 오래 전부터 그랬던 마냥,
봄이 제자리를 찾았다.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걸작을 탄생시킨
하남감일 B7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의 팀원들을 만났다.

현장 곳곳을 연결하는 기계팀

현장 내 팀들은 각기 핵심 업무가 있습니다. 기계팀은 수도와 하수처리 배관, 냉난방 시스템, 통신·네트워크 등의 연결기반을 닦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생활 설비가 막힘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활한 흐름을 목표로 하죠. 마치 우리 몸속의 **‘혈관’** 처럼요. 혈관뿐만 아니라 위, 간, 장 등 몸 안에서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장기들’ 또한 우리 기계팀의 모습입니다.

건설 현장의 브레인 담당 공무팀

현장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전체를 아우를 코디네이터가 필요한데, 해당 역할은 공무팀에서 담당하죠. 발주처 및 협력사 소장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조화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게 공무팀의 주된 덕목인 셈입니다. 공무팀에서 대표적으로 꼽는 핵심업무는 ‘원가 관리’인 데요, 현장에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계산하고 고민하는 브레인, **‘머리’**가 바로 저희 공무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래서 지탱하고 위에서 끌고 관리팀

지금 현장의 경우, 초반에 워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이 잘 돌아가서 적기에 시공할 수 있도록 근로자 인원과 장비, 자재 사용을 계획·관리하는 게 관리팀의 업무인데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먼지나 소음과 관련된 주위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했고, 제대로 된 공사 진입로가 없어 장비와 자재를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죠. 공사를 진행하는 내내 모두의 **‘손과 발’**이 되어 뛰어다녔기에 더 정이 많이 가는 현장입니다.

부름뜨고 지켜본다 안전팀

공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안전 아니겠어요? 공사 초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기반 탓에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눈은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죠? 안전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치지 않도록 각종 교육을 하고, 현장 곳곳에 위험지대를 정돈하곤 합니다. 직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보는 **‘눈’**이 바로 안전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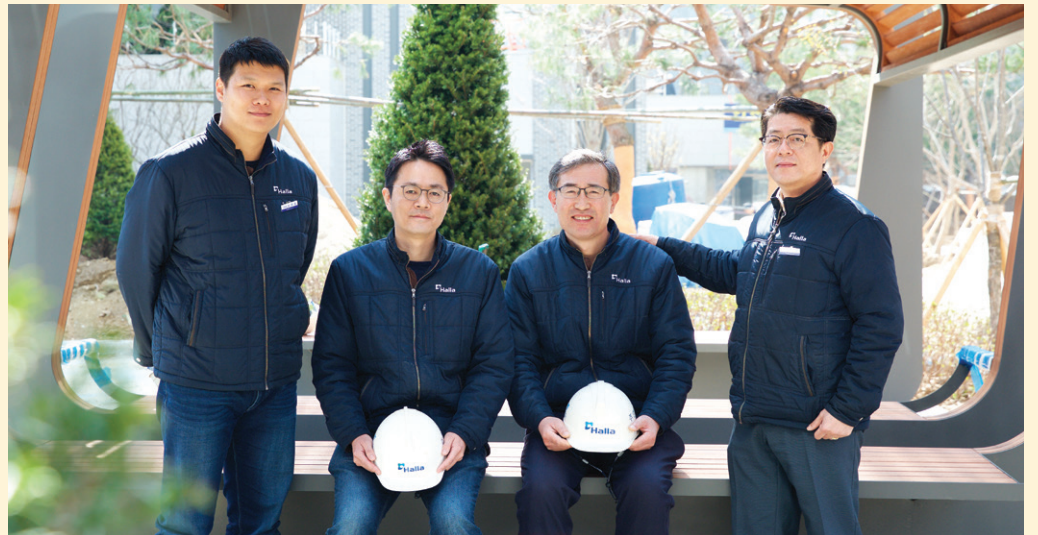
시작부터 끝까지 든든한 버팀목 공사팀

하남감일 현장은 날씨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공사 초창기, 길도 없는데 비까지 인정사정없이 내리더군요. 주변에 있는 흙들이 진흙으로 변해 질퍽질퍽 빠져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날도 여럿이었습니다. 모두 뚫뚫 뭉쳐 대안을 찾았고, 무사히 준공을 앞두고 있네요. 이처럼 공사팀은 단단한 **‘근육’**과 같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에 있으면서 골게 견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죠. 이번에 (췌)한라의 근육이 좀 더 발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기계 파트



왼쪽부터 김희중 기계팀 대리, 김형석 공무팀 과장, 이터동 기계팀 과장, 정석주 공무팀 차장



관리·안전 파트



왼쪽부터 이영근 안전팀 대리, 양항 관리팀 대리, 최은진 관리팀 사원, 김태영 관리팀 부장, 감동인 관리팀 사원



공사 파트



왼쪽부터 김근회 부장, 김현철 차장, 윤이현 사원, 이정우 과장, 김영조 과장, 안호준 사원



미래지향의
한라로

Lead to Future 코너에서는 '제대로 일하는 방식: 한라路' 사례를 공유합니다. 이번 호에는 '제대로-일하는 시스템 구축' 부문의 실천사례를 실었습니다.

해외사업팀의 팀워크 강화 및 아이디어 공유의 장

Team Small Workshop 시행

똑똑한 한 사람 보다 평범한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 그 이상이다. 팀 내의 작은 회의가 1년 만에 놀라운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킨 해외사업팀의 Team Small Workshop 시행 사례를 소개한다.

글 편집부

- 2019
해외사업팀
Team Small Workshop
상반기 일정
- 2월 13일 최윤정 사원 - 유튜브 및 개인방송인 수익구조의 이해
 - 2월 27일 손윤희 부장이사 - 세계 건설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관련 내용 공유
 - 3월 13일 김정환 과장 / 고휴진 과장
 - 실적공정표 작성 및 공정관리 사례 / 국내 주요업체 해외수주 동향
 - 4월 10일 정보기획팀 최은숙 프로
 - 한마루 Work Diary, 한미팅, 메신저 화상 시스템 활용 시연회
 - 4월 24일 허권 대리 - 소셜 '비즈니스의 개성 상인' 주인공의 역경 극복
 - 5월 8일 고휴진 과장 - CAD의 개괄적 이해
 - 5월 22일 강창윤 과장 - TBM 공법
 - 6월 19일 김승환 부장 - '세테크'
 - 6월 26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워크숍 계획 수립



“개인적인 관심사부터 트렌드, 사회적인 이슈와 애로 사항, 사소한 이야기까지 주제는 다양합니다. 팀원 분들이 자유롭게 정한 주제를 쭉 정리하다 보면 저희 팀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업무 외에 또 다른 일이 되지 않도록 Team Small Workshop 운영에는 나름 규칙이 있다.

발표 준비는 메모지를 보여줘도 무방하고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면 그만이다. 발표는 10여분 정도 발표 후 30분 정도 토론하고 질문하며 별다른 기록 없이 자연스럽게 마무리한다.

더 뜨겁게! 더 즐겁게! 가까워진 우리

올해 초 최윤정 사원이 준비한 ‘유튜버 수익구조의 이해’는 팀 내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입사한 지 갓 1년이 지난 팀 막내지만 열정만큼은 남달랐던 것.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틈틈이 야무지게 발표를 준비해온 최윤정 사원은 평소 자신이 관심 있었던, 그리고 최근 핫 트렌드이기도 한 1인 방송과 관련한 정보를 팀원들과 유익하게 공유하고자 꼼꼼한 자료조사를 거쳐 준비했다고 한다.

“며칠 동안 틈나는대로 준비를 했어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먼저 지쳤을 텐데, 평소에 좋아하던 부분이라 팀과 공유하고 싶어서 재미있게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1인 방송은 들어보았지만 사실 짧은 층이 아닌 장년층은 잘 모르는 분야이다. 또한 1인 방송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았지만 최윤정 사원의 발표 이후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이처럼 평소 모르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는 물론, 또 한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있다. 바쁜 업무로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말 한마디 주고받는 게 힘들어 서로 무뎠죽하고 데면데면했던 팀원들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서로 먼저 다가와 지난번 발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고 단체 SNS 창에는 소소한 인사와 이야기를 공유하며 이전보다 한층 가까워졌다. 또한 처음에는 긴장되고 쑥스러운 탓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다양한 시선으로 주제를 발전시켜 아이디어가 토론 때마다 쏟아진다고 한다.

최근 이윤행 과장이 준비한 신재생 에너지 발표 때에는 태양광 발전 에너지 관련 세미나를 다녀온 후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시작하여 각자의 생각에 꼬리의 꼬리를 물고 토론이 이어져 풍력 발전부터 경제 효과 이야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해외사업팀은 앞으로 Team Small Workshop을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 전사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건설 업무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금 더 넓고 깊은 시각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탤런트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유롭게 지식을 공유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다

해외사업팀은 지난해 4월부터 팀원 간의 아이디어 공유와 팀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Team Small Workshop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각자의 바쁜 업무로 인해 팀원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지난 시간 동안 Team Small Workshop이 잘 운영되고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데는 팀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고휴진 과장은 전했다.

“작년 4월부터 Team Small Workshop을 격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업무 관련 내용만을 공유하다보니 분위기가 무겁고 다른 업무회의와 별반 차이가 없게 느껴졌는데, 당시 팀장님으로 계셨던 손윤희 부장이사님이 자유롭게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점차 팀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Team Small Workshop이 업무 관련 내용으로 운영되다가 올해부터 자유 주제 발표를 통해 팀워크 강화와 인사이트 고취 및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창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워크숍 일정 공유와 주제 취합을 맡고 있는 허권 대리는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 상반기 계획표 정리를 마친 상황으로, 조만간 하반기 계획표도 정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연의 결을
손끝으로 느끼는
목공예

세상에
단 하나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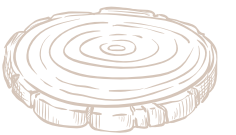


나무 도마의 탄생!

(왼쪽부터) 이효영 인프라기술영업팀 차장,
김광수 건축기술팀 과장, 황영하 동반성장팀 과장,
김병문 인사팀 과장, 김보미 설계팀 대리

더 이상 부엌의 조연이 아니다.
육즙 풍부한 스테이크부터
상큼한 과일 샐러드에 이르기까지
어떤 음식을 올려도 세련미를 더하는
플레이팅(Plating)의 대명사다.
최근 각종 SNS에서
나무 도마가 한창 각광받는 이유다.
자연이 선사하는 따뜻한 감촉의 목공예로
세상 단 하나뿐인 도마를 만들기 위해
한라인이 직접 나섰다.

글 편집부 사진 이성원
강사 오사갑(우드 아트웍 플레이스 '와플' 대표)



사포질에 따라 분위기나 결이 달라지는 나무 도마

목재를 고르고 디자인을 정하자 어느새 잘 깎은 도마가 떡하니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정도면 손도 대기 전에 완성인 듯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사포질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나 결이 달라지는 까닭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효영 차장과 김광수 과장의 표정이 자못 결연하다. 기왕 가장 입자가 굵은 100방 사포를 꺼내 들었다면 모서리라도 문질러야 할 테다. 옆에서 혼신을 다해 다듬고 있는 김병문 과장 너머로 30분 일찍 도착해 작업에 참여한 황영하 과장과 김보미 대리가 보인다. 그들은 이미 말수가 줄어든 지 오래다. 물론 초반엔 힘차게 시작했었다. 그런데 숙삭 숙삭, 결 따라 같은 움직임을 반복하다 보니 점점 지치는지 손이 느려진다. 어쨌든, 처음부터 너무 쉽다 했다.

한라 5인방이 고른 재료는 색상과 경도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제각기 매력을 지녔다. 짙은 톤의 월넛(Walnut, 호두나무)은 부드러운 줄무늬에서 풍기는 분위기와는 달리 상당히 견고하다. 이에 견줄 만큼 단단한 메이플(Maple, 단풍나무)은 밝은 컬러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비교적 무른 대신 가벼워 활용하기 좋은 오리나무 역시 인기 만점이란다.

고심해서 고른 나무를 수차례 사포질한 끝에 새삼 만져보니 확연히 매끈해졌다. 한결 반지르르한 표면에 마음마져 윤이 나는 기분이라는 김보미 대리의 이야기에 다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작업에 급 결성한 아빠들의 수다

제일 거친 사포로 옆선과 모서리까지 충분히 마감해준 다음엔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거칠거칠하지 않은지 촉감으로 살핀다. 또, 찬찬히 보고 라인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모두 충족한다면 물을 뿌리고 말려 섬유질이 일어난 데까지 말끔히 정리한다. 이는 보다 부드러운 220방·320방 사포로 다듬기 전에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코스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포질 사이에 자연스레 아빠들의 수다가 동질감을 형성했다. 평소 업무에 집중하느라 자녀 얼굴 보기가 쉽지 않으니 주말마다 마주하는 기회가 더없이 소중한 터다. 나무 도마를 다 만들면 어떻게 써볼까 궁리하던 차에 이효영 차장이 가족을 위해 요리에 나서보겠다고 이야기하자 주위에서 멋지다며 칭찬이 자자하다. 딸이 돌고래 모양 도마를 특별 주문했는데 그런 구성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전한 김광수 과장 역시 같은 마음이다.

“우리 집 아이들이 제가 해준 요리를 맛있게 먹어요. 비록 잘하는 메뉴가 계란 볶음밥뿐이지만, 주말이라도 직접 만든 도마로 솜씨를 발휘해보고 싶어요.”

아내가 요리사라는 김병문 과장은 집에 여러 종류의 도마가 있지만 수제 아이템은 아직 없다며 어께가 으쓱하다. 잘 만들어서 선물할 계획에 절로 입꼬리가 올라간 그가 다시금 두 팔을 걷어붙인다.



제일 거친 사포로 옆선과 모서리를 마감하고 물을 뿌리고 말려 섬유질을 제거한 뒤, 좀 더 부드러운 220방·320방 사포로 다듬고 오일을 발라… 정성이 켜켜이 쌓여 도마가 되는 시간.



김광수 건축기술팀 과장



이효영 인프라기술영업팀 차장



김병문 인사팀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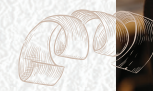
황영하 동반성장팀 과장



김보미 설계팀 대리

똑딱똑딱,
쓱쓱쓱쓱

저희는 지금
가족의 ‘맛있는 행복’
담을 도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집 갈 땐 역시 새 도마,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로 맛보는 달콤한 완성의 기쁨

집중하느라 2시간이 금세 가버렸다. 세 가지의 사포가 깎아내는 시간을 오롯이 건디고 완전한 도마로 거듭난 작품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공정은 문신(?)이다. 손수 정성을 다해 만든 만큼, 겉면에 인두로 자신만의 메시지를 새겨 넣어 지금을 추억하고자 한다.

“아마 여성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화장할 때 눈썹 그리듯 살살 선을 그려가면서 여러 번 리터칭하는 게 포인트예요. 한 번에 꼭 눌러 쓰면 타들어 가서 움푹 패니 한 번 약하게 선을 그리고 이를 따라서 두 번 겹쳐 써주세요.”

분명 아침마다 눈썹을 그려왔는데 어째서 인두를 잡으니 막막한 걸까. 바들바들 떨리는 손이 못내 아쉽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황영하 과장이다. 어깨너머로 슬쩍 들여다본 김보미 대리는 ‘꽃길만 걷자’는 그의 글귀가 마음에 들었는지 같은 걸로 새겨보겠다고 몇 번이고 연습이다. 최근 이사하면서 새집에 새 도마를 들고 갈 계획이라는데 마침 딱 들어맞는다.

나무의 맨살을 감싸줄 코팅은 미네랄오일의 몫이다. 공들여 매만진 도마에 충분히 오일을 뿌려 배이게 하면 색이 더 진해지면서 광택이 돈다. 손끝에서 차오르는 목재만의 따스한 느낌이 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수수하지만 멋스러운 에코백에 작품을 담아 들고 신나게 공방을 나서며 손을 흔들 어본다. 이제 공방을 떠나지만, 수제 도마 만들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달콤한 완성의 기쁨은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즐기는 요리로 도마가 제 쓰임을 다할 때 비로소 맛볼 수 있기에.



오사갑 강사의 나무 도마 오래쓰기 꿀팁

수제 나무 도마는 다 만들고 나서도 계속해서 관리해줘야 상하지 않습니다. 미네랄 오일을 발라서 겉면을 정리해줬듯이 도마 왁스를 사서 두 달에 한 번 발라주세요. 가격이 비싸지 않을뿐더러 바를 때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으니 구입해두면 오래 씁니다. 목공예 제품인 만큼 물이 닿으면 그늘에서 잘 말려야 뒤틀리지 않아요.

한라그룹, 2019년 한라로 및 핵심가치(경영메시지) 실천 과정 시행



한라그룹은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라인재개발원에서 전 계열사 팀장 344명을 대상으로 한라로/핵심가치 실천 과정을 시행했다. 이 교육은 그룹이 당면한 절박한 경영환경에 대해 전 구성원이 공감하고, 2019년 경영 메시지인 ‘새롭게 다르게’의 공유를 통해 이것에 내포된 핵심가치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총 11차수로 하루 동안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경영환경 및 그룹 경영방침 이해, 2019년 경영메시지(새롭게 다르게) 의미, 비전 체계/핵심가치/한라로 Review, ‘새롭게 다르게’ 실천과 리더의 역할, ‘새롭게 다르게’ 실천을 위한 Work Way 도출, 팀원 전파를 위한 운영 Skill 학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교육 대상자인 (주)한라 동반성장팀 김벽수 부장이사는 “한라로 및 한라로 핵심가치는 이미 직원들에게 내재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해봤나, 안 해봤냐’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 또는 실행력의 차이가 아닐까? 팀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가 되겠다”고 교육을 마친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본 교육 이후 모든 팀장은 경영환경과 2019년 경영메시지의 내용을 해당 팀원에게 전파하고 팀별로 ‘새롭게 다르게’를 실천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라인재개발원에서는 HANMARU 內 Work Together를 활용하여 교육 자료와 팀별로 제출한 ‘새롭게 다르게’ 실행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라그룹,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억 원 기부

한라그룹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을 위해 성금 2억 원을 기부했다.

한라그룹은 지주사인 한라홀딩스 명의로 산불 피해 공식 기금 모금처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했고,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은 강릉시 옥계면 이재민을 위로하기 위해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별도로 1억 원을 기탁했다.

정몽원 회장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만도 원주사업장과 한라대학교 등 그룹 계열사가 강원도에 있는 만큼 피해 복구에 물심 양면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당사의 제29기 정기주주총회가 3월 28일 본사 9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의장을 맡은 박철홍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주식회사 한라는 2018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여러 주주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부평오피스텔, 당진수청지구아파트, 대구평리주택재개발 사업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70%가량 증가한 1조 4천여억 원을 수주하였습니다”라며 “한라는 2019년도 경영목표를 수주 1조 8천 억, 매출 1조 3천 70억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양질의 수주와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여 매출 성장은 물론 이익 실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라는 내부 구성원, 이해관계자, 고객이 행복한 회사,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익 창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 시장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신규 이사 선임, 정관 변경 승인 등 4개 안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이사 선임의 건에서는 사내이사로 이석민 (주)한라 사장, 김만영 경영지원본부장이 새로 선임되었다.

‘김해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견본주택 개관

삼계두곡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당사가 시공하는 ‘김해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가 지난 3월 29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개관 행사에 당사 이석민 사장, 관련 임직원 및 분양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관식을 축하하고 테이프 커팅을 진행했다.

‘김해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는 김해시 삼계동 519-3에 위치, 지하 5층~지상 29층, 21개동, 전용면적 64~84㎡ 총 1936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되며 이 중 43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입주는 2021년 12월 예정이다.

본 입지는 부산경전철 가야대역 도보 6분 거리와 뛰어난 학세권, 무엇보다 단지 내 테마 공원, 수영장, 실내 및 스크린 골프장, 대형 찜질방, 당구장 등 약 9,000㎡ 규모의 초대형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계획으로 높은 주거 편의성이 큰 장점이다.

‘김해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견본주택은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62(삼정동472)에 위치하며, 개관 이후 3일간 약 1만 4,500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동했습니다

김성수 부장	부산그린파워매립조성
김성우 부장	인프라사업관리팀
박지호 부장	김해삼계두곡APT
이범형 부장	구리갈매택지
김성기 차장	김해삼계두곡APT
박명규 차장	삼성전자평택주차빌딩
박상현 차장	구리갈매택지
박진수 차장	다산현대아울렛
양성문 차장	공사관리팀
염광천 차장	인프라사업관리팀
염상선 차장	남양주현대아울렛
이교일 차장	부산그린파워매립조성
임태식 차장	남양주현대아울렛
최영홍 차장	현대오일뱅크돌핀부두
최태환 차장	현대해상천안사옥
김동환 과장	정보기획팀
김천호 과장	남양주현대아울렛
김치시 과장	기획팀
이중희 과장	코트디부아르지사
이한봉 과장	신사동복합시설
장서은 과장	인사팀
조정덕 과장	정보기획팀
최지환 과장	정보기획팀
강병준 대리	인프라사업관리팀
문진윤 대리	현대오일뱅크돌핀부두
송지웅 대리	동탄물류C블록
유현준 대리	속초생활형숙박시설AB
이정덕 대리	설계팀
정진우 대리	창원하수관로정비
김동혁 사원	오뚜기중앙연구소

환영합니다

김재환 차장	수원역복합건물
전재홍 차장	삼성레트로핏
편종석 과장	삼성레트로핏
김민기 대리	삼성레트로핏
박상호 대리	삼성레트로핏
문제찬 사원	현대아울렛가산점
차훈준 사원	서울대스마트캠퍼스1차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찬 부장	유통물류팀
이영무 차장	울산북항방파호안
김윤성 과장	동부간선도로확장
이정욱 과장	현중해양안벽보수
이주성 과장	S사업팀
민동찬 사원	오뚜기중앙연구소
안효춘 사원	하남감일7B/LAPT

축하드립니다

박은지 대리(본인결혼)	건축기술팀
최성규 차장(자녀출산)	현대해상천안사옥
정병하 과장(자녀출산)	Smart사업팀
임민희 대리(자녀출산)	설계팀
박종섭 반장(자녀결혼)	하남감일B7BL APT

만수무강하십시오

신태훈 차장(부친칠순)	송도레지던스
최성규 차장(모친칠순)	현대해상천안사옥
반영현 과장(모친칠순)	UAEFSS
이영주 과장(부친회갑)	서해선10공구
김상현 대리(모친회갑)	인프라사업개발팀
이원준 대리(모친회갑)	서해선3공구
윤재용 사원(모친회갑)	동탄물류C블록
강원순 과장(장모회갑)	인프라사업관리팀
김영일 과장(장모회갑)	안전보건팀
박홍식 대리(장모회갑)	서울대스마트캠퍼스2차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문영완 차장(부친상)	당진수청지구APT
안계석 차장(부친상)	인프라사업개발팀
강성은 대리(부친상)	삼원특수지사옥
이권철 전무(장인상)	인사팀
전인택 차장(장인상)	김해삼계두곡APT
오희진 과장(외조모상)	인프라사업관리팀

Get Healthy



하루  5분 투자!

균형 잡힌 바디라인을 위한 초 간단 운동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진 요즘, 매끈한 바디라인을 위해 운동을 결심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는 직장인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기는 쉽지 않다.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해주는 스트레칭만으로도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소개한다.

동작 시연 시그마스스포츠클럽 SFC점 김은우 트레이너

탄탄한 엉덩이 근력 강화 운동 **스탠딩 힙 익스텐션 Standing Hip Extension**



Point!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유지하며 각 1분간 교차로 진행한다.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도록 한다.

피로를 풀어주는 하체 운동 **햄스트링 스트레칭 Hamstring Stretching**



Point!

몸을 숙여 발을 잡으려할 때 중요한 점은 뻗은 다리와 배가 서로 맞닿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도록 한다.



⑨사보를 만들 수 없기에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가 침대 위에 나란히 앉아 있다면? 뒤에 일어날 일은 상상에 맡긴 채 삼성레트로핏 현장 김형용 대리 부부의 B컷 사진부터 공개한다. 새하얀 침대, 포근하게 내리쬐는 햇살,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부부. 사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지만 신혼부부에게 침실이란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하는 곳이기에, 아쉽지만 메인 컷으로 선정하지 못했다.



나도 귀여울 수 있다규~

평소 못 잘 입기로 소문난 Let's사업팀의 안성향 과장. 큰 키, 말끔한 머리 스타일, 모범적인 인상 덕에 주로 '깔끔하다, 세련됐다'는 말을 들어왔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카메라 앞에서 훈남 표정을 지어주던 안 과장은 "양 손을 주머니에 한 번 넣어볼까요?"하는 사진작가의 주문에 도시적인 느낌의 남자에서 한 방에 귀염둥이로 변신! 고개를 45도로 기울인 채 해맑게 웃고 있는 그의 표정이 말하는 듯하다. "나도 귀여울 수 있다규~"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그들이 이룬 밀레니얼 가족. 요즘 매스컴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이들은 동반자 의식을 통해 집안일은 부부가 함께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개인의 시간과 취미생활을 존중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그리 낯설진 않은데요. 요즘은 세대를 막론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부부간 평등을 추구하는 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목공예-도마 만들기' 클래스가 '아빠 한라인'들의 관심을 받은 것도 가정 내 이러한 변화를 설명해주는 듯 합니다. 아내에게 선물하겠다는 남편의 다정한 마음도, 서툴지만 아이들에게 직접 요리를 해주고 싶은 아빠의 사랑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인프라기술영업팀 이효영 차장님이 도마에 새긴 '요리는 내가 한다'는 문구는 요즘말로 멋짐 폭발이었죠.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족 간 조금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보 주재기자

허민 과장(동반성장팀), 강길현 과장(건축사업관리팀), 이진민 대리(안전보건팀), 김민중 대리(인프라사업관리팀), 조세웅 대리(S사업팀)

정기 구독 & 주소 변경

기획팀으로 전화(02-3434-5791)하시거나
메일(soomin.lee@halla.com)로 신청해주세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웹진으로 연결됩니다.
<http://hallawebzine.co.kr/>

김해가 꿈꾸던 신혼주거타운의 중심 스마트 라이프의 시작

김해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1,936세대 압도적인 스케일에

14개 테마공원,

수영장을 품은

초대형 커뮤니티시설까지-

김해에 없던

스마트 라이프를 만나보십시오



약 **1,000대** 이상의 **여유 주차**와 약 **9,000㎡** 커뮤니티시설

 7레인 수영장
 유아풀

 대형 찜질방
 사우나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탁구장
 당구장

 카페



초특급 교통 | 가야대역 도보 6분, 남해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도로, 국도 14번
수준급 교육 | 신명초교, 삼계중, 분성고, 분성여고, 가야대학교 등 우수한 학군
정상급 생활 | 단지 앞 편의시설 및 가야대역, 대형마트, 백화점 이용이 편리
최상급 자연 | 해변천, 화정공원, 무척산, 김해시민체육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

시행 | 삼계두곡 | 지역주택조합
시공 | Halla 주|한리
신약 | KOREA trust

3월 OPEN
055) 311.7400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임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의 색채 등은 배치설치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4㎡ / 75㎡ / 84㎡ 총 1,936세대 중 일부 일반분양